

호날두·지단 ‘챔피언 미소’



레알 마드리드가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2015-2016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연장전까지 1-1 무승부에 이은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레알의 지네딘 지단이 호날두를 껴안으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단은 현역과 지도자로서 모두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맛보는 영광을 누렸다. /연합뉴스

UEFA 챔스 결승 레알, 승부차기 끝 AT에 5-3 승...지단, 선수로·지도자로 우승 경험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가 '지역 라이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하 AT 마드리드)와 2년 만의 '리턴 매치'에서 승리하며 통산 11번째 유럽 축구 챔피언에 등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9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티아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1-1로 무승부를 거둔 뒤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승리했다.

2년 전 결승전에서도 AT 마드리드를 격파하고 우승 트로피인 '빅 이어(Big Ear)'를 차지한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승리로 통산 11번째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으

로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이어갔다.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상금 1500만 유로(약 198억원)를 받았고 AT 마드리드는 준우승 상금 1050만 유로(약 139억원)를 챙겼다.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상금뿐만 아니라 조별 리그부터 쌓은 출전 수당에 TV 중계권 등 UEFA 배당금을 합쳐 약 1000억원대의 수입이 예상된다.

반면 통산 세 번째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나선 AT 마드리드는 2년 만에 또다시 레알 마드리드에 발목을 잡히고 준우승 기록만 세 차례(1974년·2014년·2016년)로 늘렸다.

더불어 지난 1월 시즌 중반 레알 마드리드의 지휘봉을 잡은 지네딘 지단 감독은 현역과 지도자로서 모두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맛보는 영광도 누렸다. 다만 UEFA 챔피언스리그 한 시즌 최다골(17

골) 기록 보유자인 레알 마드리드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골점목을 지켰지만,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서 우승의 마침표를 찍는 활약 속에 이번 시즌 16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전방에 가레스 베일-카림 벤제마-호날두로 이어지는 'BBC 라인'을 가동했고, 이에 맞서는 AT 마드리드는 양투안 그리즈만과 페르난도 토레스를 배치해 맞붙을 뒀다.

전반 15분 레알 마드리드의 라모스의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초반 분위기를 레알 마드리드가 이끌었다. AT 마드리드는 후반 2분 토레스가 페널티지역에서 수비수 페페에게 밀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따내 반격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키커로 나선 그리즈만의 왼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자 AT 마드리드 팬들의 깊

은 탄식이 쏟아졌다.

하지만 AT 마드리드는 후반 34분 카라스코의 오른발 슈팅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연장승부에 들어간 두 팀은 결승골을 넣지 못하면서 파를 말리는 승부차기로 들어갔다.

레알 마드리드의 선축으로 시작된 승부차기에서 두 팀은 3-3까지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레알 마드리드의 네 번째 키커 라모스가 득점에 성공했지만 AT 마드리드 후안프란의 슈팅이 왼쪽 골대를 때렸다. 레알 마드리드의 마지막 키커로 나선 주인공은 호날두였다. 호날두는 '최종주자'로 나서 득점에 성공, 창단 113년 만에 사상 첫 우승을 노린 AT 마드리드의 바람을 꺾고 레알 마드리드의 11번째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양학선 "팬 응원 감사" 기계체조 국가대표 양학선이 29일 오전 서울 이마트 영등포점에서 열린 '응답하라 양학선' 팬사인회에서 팬들 메시지가 적힌 도마를 안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보상 선방쇼...광주 FC 파죽의 3연승



K리그 클래식 12R 홈경기...수원에 1-0 승

정조국 결승골...수원 김병오 종료 휘슬에 화풀이 '눈살'

프로축구 광주 FC가 파죽의 3연승을 달렸다.

광주 FC가 지난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K리그 클래식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상주 상무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인천원정 그리고 다시 홈경기까지 모두 1-0 승리를 거두면서 광주는 시즌 3연승에 성공했다.

베테랑 정조국이 페널티킥 찬스를 놓치지 않고 수원 FC의 골문을 열었고, 신인 골키퍼 윤보상은 신들린 선방으로 광주 골대를 지키면서 3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초반 흐름은 수원 FC가 주도했다. 초반에는 수원 FC가 60%의 골 점유율을 보이면서 광주를 압박했다. 그러나 수원의 결정적

인 공격장면이 연출되지 않으면서 광주가 점점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반 36분 광주에 득점 기회가 찾아왔다. 중원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잡은 이요셉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몰고 들어갔고 상대의 반칙이 나오면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다.

페널티킥 찬스에서 키커로 나선 이는 '무등산 패트리엇' 정조국이였다. 정조국은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다. 첫 골이 터진 뒤 3분 만에 다시 정조국에게 득점 기회가 찾아왔다. 공을 몰고 중앙으로 이동하던 광주 미드필더 김민혁이 블라단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경고 카드와 함께 광주에 프리킥 찬스가 주어졌다. 페널티박스 바로 앞쪽에서

얻은 기회, 정조국이 직접 슈팅을 노렸지만 아쉽게 상대 골키퍼 박형순의 손에 걸렸다. 후반 16분 정조국이 다시 한번 필드골에 도전했다. 드리블 쇼를 펼친 끝에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이번에는 골대를 맞으면서 추가득점에는 실패했다.

치열한 몸싸움이 전개되던 후반 35분 수원 FC의 배신영이 거친 태클로 퇴장 카드를 받았다. 광주의 호재였지만 후반 막바지 경기 흐름은 오히려 수원 FC쪽으로 기울었다. 잠잠하던 상대의 슈팅이 매섭게 광주 골대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광주에는 특급 신인 골키퍼 윤보상이 있었다. 윤보상이 슈퍼 세이브를 잇달아 선보였고, 그 때마다 수원 FC 선수들이 머리를 감싸

안았다. 광주는 7분의 추가시간까지 잘 버티면서 3연승의 기쁨을 누리 수 있었다.

팀 승리를 지킨 윤보상은 "앞선 수원 FC와의 원정경기에서도 후반 막바지에 골을 먹어서 역전을 당했다. 그래서 후반 막판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막으려고 준비를 했다. 공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에서 진 수원 FC는 매너에서도 졌다. 막판 공세에도 골대를 여는 데 실패한 수원 FC는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는 순간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고 카드를 받았다. 수원 FC 김병오가 패배로 경기 끝나자 화풀이라도 하듯 공을 찼고, 공은 그대로 앞에 서있던 광주 수비수 박동진의 허리를 때렸다. 주심의 경고 카드가 다시 한 번 뿜어졌고 결국 양 팀 벤치의 실전까지 이어졌다. 수원 FC의 계속된 비매너 플레이가 광주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김성연 국제유도 마스터스銅 '리우 청신호'

'한국 여자유도의 기대주' 김성연(25·광주도시철도공사·파란색 운동복)이 2016 국제유도연맹(IJF) 마스터스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체급별로 세계 랭킹 16위 이내 정상급 스타들이 출전하는데, 리우 올림픽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유도계 안팎에서는 메달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회로 관심이 모아졌다.

김성연은 지난 29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여자 70kg 이하급 동메달 결정전(사진)에서 영국의 엘리 콘웨이를 절반으로 누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성연은 앞서 프랑스 선수와 몽골 선수를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 세계랭킹 1위 폴링 킴(네덜란드)과 맞섰지만 종료 1분을 남기고 '굳히기' 작전에 말려들어 어렵게 패한 뒤 동메달 결정전에 나섰다.

김성연은 지난 2013년 브라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폴링 킴(네덜란드)을 꺾은 바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김지율기자 wool@kwangju.co.kr